

300-5-124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6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1935년 4월 26일 적색노동조합 및 反帝동맹사건 검거에 관한 건의보고가 있었으며, 李載裕·卞洪大·安炳春·李順今·金三龍·崔小福·李仁行·邊雨植·李景仙·南萬熙·任澤宰·鄭龍山 등이 관련자이다. 南萬熙·李仁行·李順今·安炳春·辛海甲·禹燦九·邊雨植 등의 수색처분과 差押이 있었다.
- 1934년 4월 27일 卞洪大·李順今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안병춘의 청취서 작성 1회가 진행되었다(2회는 28일에 진행). 4월 28일 南萬熙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1·2회 진행되었으며, 金令媛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29일 南萬熙의 3회, 4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30일 李丙驥·柳福童·金花姬·吳一順·權五相 등의 청취서가 작성되었으며, 5월 1일 申德均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 1934년 5월 1일 南萬熙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동일 金在東·金福今·李貞賢 등의 청취서 작성, 2일 曹昌珠, 3일 金福今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5월 4일 南萬熙의 6회 피의자 신문조사, 5일 任澤馨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동일 李貞賢 2회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 5월 6일 任澤宰 2회·鄭龍山, 7일 朴日馨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6일 沈鍾晨의 증인조서가 작성되었다.